

# '익산형 일자리' 한발 더 전진

### 시민 공론화 통한 공감대 형성... 상생협약안 마련

지역의 향토 기업인 하림을 중심으로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이끌 '전북 익산형 일자리'가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더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나간다.

'전북익산형 일자리'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징이 반영된 전국 최초로 농업이 중심이 된 노·농·사 간 상생 일자리 모델이다.

농가와 기업 간 우호적 관계 형성과 기업과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협력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시는 노·농·사·민·정의 다양한 주체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북익산형 일자리 추진사항을 공유하며 익산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민 공론화 토

론회'가 11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론화는 익산시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상생요소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식품기업관계자, 노동자, 학생,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한 가운데 노·농·사·민·정의 대표가 협약(안)의 주요 의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택립 익산시 부시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勞)한국노동연맹 익산지부 이주태 노동상담소장,

(農)익산타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김종길 대표, (吏)하림자주 문경민전무, (民)희망연대 이진홍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익산시 노·농·사·민·정의 상생방안 ▲익산시 식품산업 육성방안 ▲익산시 상생협약의 성공방향이래는 3가지 의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특히 청년을 대표하여 원광대학교 박현규, 이세영학생이 패널로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익산형 일자리는 근로자와 농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상생형 모델로, 지난 4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에 선정돼 농업과 식품기업 간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노·농·사·민·정 각 주체 간 상생협약체결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익산=이득훈기자



익산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공식 야간 야구경기장의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포츠 메카로서의 도약을 일렷다

## LED 조명탑 점등식 개최

### 익산 야구장 야간경기 시대 시설 개선·보수

익산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공식 야간 야구경기장의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포츠 메카로서의 도약을 일렷다.

시는 야간 조명탑을 전면 LED로 교체해 더욱 탄탄한 인프라로 야구인 저변을 확대하고 공식 야간경기 개최 및 훈련유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10일 익산야구장에서 새로 설치된 야간 LED조명탑에 점등식을 갖고 첫 친선경기를 치렀다.

시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8억원, 총3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노후 조명 6기를 최신 LED조명으로 전면 교체했다. 이에 따라 2022년 훈련장용 조도로 설계된 조명탑이 공식 야간경기가 가능한 구장으로 탈바꿈했다

/익산=이득훈기자

시는 야간에 경기를 치르거나 훈련하는 선수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저녁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명탑 높이를 보장하는 등 조명 시설을 전격적으로 개보수한 것이다.

한편 이날 야구장 조명탑 점등식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박철원 익산시의회 부의장, 이선호 익산야구소 프트볼협회 회장, 남상봉 KT스포츠 사장, 야구관계자를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해 야간조명 점등식 응원단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야간조명탑 점등을 환영했다.

특히 야간조명 점등식 친선경기로 KT WIZ 퓨처스와 원광대학교 야구부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져 이날 점등식을 화려하게 빛냈다

## 지역 소식통

###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40일간 돌입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일부터 12월20일까지 40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례안11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의견 3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외국인 주민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군산시 공영장제 지원 조례안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 ▲군산시 갑질 행위규율 및 피해지원 조례안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군산시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지원 조례안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9건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 군산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전환에 발맞춰 그동안 주춤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맞춤형 홍보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발맞춰 비대면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체험형 관광으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9회 시간여행축제와 군산관광을 알리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한 베타버스 군산시간여행마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영향력 있는 SNS인플루언서 및 여행 작가(여행기자)를 대상으로 군산을 여행하고 자신의 SNS에 군산을 홍보할 경우 여행지원금을 지원하는 개별·소규모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군산 관광 포토부어와 시간여행마을에서 고군산까지 운행하는 군산시터투어를 통해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시, 요소수 수급 안정 위한 업무협약 추진

### 시·아톤산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군산시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11일 군산시청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와 익산에서 차량용 요소수를 생산하는 (유)아톤산업(대표:김기원)이 참석했으며, 최근 중국의 요소수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군산시내 요소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을 다짐했다. 아톤산업은 시와 협약을 맺고 군산시민 및 군산시에 등록된 화물차와 공공차량에 대해 요소수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아톤산업 김기원 대표는 "군산시민으로서 군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면서 "전라북도내 소재한 기업으로 관내 요소수대란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전국적으로 요소

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군산 경제가 멈출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선뜻 도움을 준 아톤산업에 감사하다"며 "전라북도내 지역업체가 공익을 위해 양산된 것도 좋은 일이지만 군산시민이 주체적 해결에 앞장서고 있어 더 감사하고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유)아톤산업은 익산시 소재 기업으로 전북 유일의 차량용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 익산시, 전북 최초 다문화 전시체험 '글로벌문화관' 개관

익산시는 전 세계 문화와 역사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전시 체험시설을 도내 최초로 선보인다.

익산 글로벌문화관은 다문화 아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세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문화 복합시설로 여러 나라의 전통·문화·역사 등 전시 및 체험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시는 다문화 전시체험시설과 다문화 교육 현장학습 공간인 익산 글로벌문화관 개관식을 11일 개최했다. 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이번 개관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다문화 관련 기관 등 각 분야에서

참석해 개관식 행사와 시설 관람,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익산 글로벌문화관은 중앙로 교복거리에 위치하며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물품 전시관 관람과 나라별 전통문화·음식 등을 체험하며 다양한 세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다문화 음식점과 다문화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고 세계 5대 음식으로 꼽히는 태국음식점이 공모를 통해 입점을 준비 중이다. 2층은 세계 여러나라의 전통물품 전시관으로 전통혼례복·악기·회화·가면 등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하고 실제로 전통의상을 입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3층은 나라별 전통악기·놀이·문화

체험을 하는 교육실과 세계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체험실이 있으며, 옥탑은 옥상연타를 활용해 폴리마켓, 소규모 공연 등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전시·체험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글로벌문화관 홈페이지(<http://global.ksan.gakr>)로 예약할 수 있고 단체예약은 우선전화로도 가능하다. 다문화 음식점과 카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다.

앞으로 관내 어린이집·교육청(유치원, 초등학교 등) 등과도 연계해 교과 과정에 수록된 다문화 교육의 현장학습 체험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 익산시, 2021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익산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2021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11일 황등면 소재 익산 석제품 홍보전시관 광장에서 정현을 시장 유재구 시의장, 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가운데 2021년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농업 선도와 농촌발전에 노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 12명과 생활개선회, 여성농민회, 풀빛항기 송정마을, 익산원협 등 4개 단체가 익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사)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에서



활동하는 조희성 정책부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주)하림 1본부 사육지원팀 신근록 팀장이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용산초등학교 풍물단 공연과 전자현악과 퓨전국악 공연이 농업인의 날을 축하해 주었고 마을공동체 체험, 가래떡 나눔행사 등 부대행사를 가졌다.

/익산=이득훈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